

## 시애틀에서 만남 변방의 예술

우리에게 친숙한 미 서부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에는 포틀랜드라는 작은 도시가 있고, 다시 이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와 접한 곳에 시애틀이 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 덕분에 친숙하긴 하지만 시애틀이 어떤 도시인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애틀은 미국 역사의 중심에 있던 도시는 아니지만, 보잉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 세계적인 21세기 아이콘 기업들이 터를 잡고 있는 비즈니스 도시다. 또한 너바나, 펄잼, R.E.M 등 얼터너티브 록 음악이 꽃핀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 도시에서는 어떤 예술적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을까? 누구나 알듯이 미국 영화의 중심지는 할리우드, 공연예술의 중심은 뉴욕이다. 하지만 중심이 있다면 변방이 있기 마련이고, 그 변방에는 중심과 다른 뭔가가 있다.

3월 2일, 아직도 겨울비가 그치지 않는 시애틀의 실험극장 '온더보드(On The Boards)'에서는 시애틀보다 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포틀랜드의 무용팀 티스(tEEth)의 <Make/Believe>가 공연되었다.



<Make/Believe>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과 상처를 표현하지만, 남녀 관계와 같은 통념적인 관계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또 움직임과 무대의 사용, 빛과 소리를 지나치게 꽉 채우지 않으면서도 강약을 조절한 수작이다.  
©Patrick Weishampel



마이크를 통해 움직임의 소리를 표현한  
《Make/Believe》

### 마이크를 타고 퍼지는 움직임의 소리

티스는 포틀랜드에 근거를 둔 작은 무용팀으로 안무가 안젤라 허버트(Angelle Hebert)와 실험음악가 필립 크래프트(Philip Kraft)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팀을 이끌어 가고 있다. 흔히 무용 공연에서 음악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음악은 무용수들의 움직임만큼 중요한 요소로서 작품을 만들어 간다.

공연이 시작되면 네 명의 남녀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그중 무용수 두 명의 입에 ‘마이크’가 물려 있다. 마치 개의 입에 뼈다귀를 물린 것처럼, 마이크는 작지만 그 작품에서의 역할은 매우 큰 오브제다. 흡사 유인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용수들은 의미 없는 문장들을 되뇌며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 이들이 말하는 문장과 소리는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기도 하고, 마이크에서 멀어져 스피커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상대의 입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거나 손가락으로 이를 부딪쳐 내는 대사들은 언어보다는 소리에 가깝다. 마이크 줄로 상대방의 얼굴을 감싸는데, 그 사람의 절규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 더 처절하게 느껴진다. 이 소리는 예술 감독 필립 크래프트에 의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리듬감 있는 새로운 음악적 사운드로 변형된다. ‘마이크’는 작게는 소리를 수집해 변형하는 도구지만, 그것이 독백이건 대화건 그 사람이 외롭건 상처받았건, 소통이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심점이 된다.

### 빛, 소리, 움직임이 보여주는 소통의 어려움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오브제로서의 마이크와, 소리와 대사를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한 여성 관객이 공격적인 남성과 방어적인 여성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는데, 무용수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적된 장면에서 남성 무용수가 공격적인 행위를 연기하고, 여성 무용수가 괴로워하며 방어하는 역을 연기하지만 그들의 대사는 반대로 나온다. 즉, 행동과 다르게 남성이 여성

의 대사를 읽고, 여성이 오히려 공격하는 남성의 대사를 읽는 등 최대한 남과 여를 희석하려 했다는 것이다. 《Make/Believe》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과 상처를 표현하지만, 남녀 관계와 같은 통념적인 관계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또 움직임과 무대의 사용, 빛과 소리를 지나치게 꽉 채우지 않으면서도 강약을 조절한, 사람들 간 소통의 어려움을 진부하지 않게 표현해 나간 수작이다.

《Make/Believe》는 시애틀의 실험창작 공간인 온더보드의 주도로 포틀랜드의 화이트버드(White Bird)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시애틀의 무용수 2명과 포틀랜드의 무용수 2명이 연합해 배우들의 움직임과 대사들을 만들어내고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만들어갔다. 이번 완성작 공연 전에는 2011년 ‘어워드쇼(The A.W.A.R.D. Show)’에서 선보여 호평과 함께 상금을 획득하기도 했다. 어워드쇼는 뉴욕의 조이스 극장이 주도하고 온더보드 등 미국 내 5개 극장이 조직하는 경쟁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 어워드쇼에는 6개 극장이 추천한 12명의 안무가가 참가해 아직 제작 과정에 있는 작품의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각 극장의 디렉터들과 심사위원의 조언과, 관객의 평가를 통해 작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티스는 《Make/Believe》라는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시애틀의 실험극장 ‘온더보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과 창작을 가능케 하고 예술가와 협업하는 지역의 창작 공간이다. 이제 뉴욕에만 집중된 관심을 온더보드와 같은 지역의 실험정신으로 옮겨갈 때가 아닌가 싶다.

**시인들의 창작발전소 '온더보드'**

이 작품을 제작하고 지원한 온더보드는 1978년 지역의 예술가들에 의해 세워진 실험과 창작,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인들의 창작발전소다. 전통보다는 실험과 혁신을 강조하며, 제작과 토론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지역에 소개하는 'Inter/National Series' 와,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 제작한 작품들이 소개되는 'Northwest Series' 가 연간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신인에게 열린 등용 구조를 위한 '12 Minutes Max' 라는 쇼케이스는 젊은 예술가들이 12분 내외로 진행 중인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극장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상시 프로그램에 더해, 'NW New Works Festival' 을 매년 개최하는데, 말 그대로 약 16개의 북서 미주 지역의 혁신적 신작들을 소개하는 축제다.

지역의 예술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과 창작을 가능케 하고 예술가와 협업하는 지역의 창작 공간이다. 이제 뉴욕에만 집중된 관심을 온더보드와 같은 창작공간의 실험정신으로 옮겨갈 때가 아닌가 싶다. **미노**

글\_유병진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했다. 공연에 관한 관심에서 삶에 관한 관심으로 생각과 좌표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는 소일거리를 하며 게으르지만,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모색 중이다.

〈Make/Believe〉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 NTOK NEWS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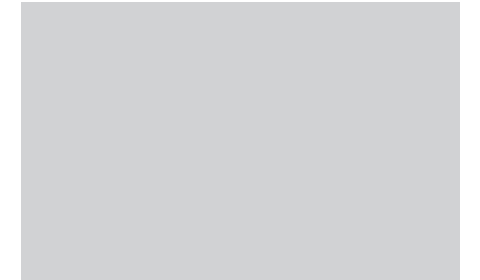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은 지난 3월 8일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에 김성녀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장 겸 국악대 학장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는 원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올해 예술감독은 공고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배우로서 30여 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고, 중앙대학교 국악대 학장과 국악교육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국립창극단과 국립극단 단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원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했고, '푸리'와 '바람꽃'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악 공연에 참여해왔다. 두 감독의 임기는 3년이다.

관련 기사 38쪽.

**국립창극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특별 공연**



국립창극단은 지난 3월 22일 충남 계룡대 육군부대를 찾아 특별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창극의 주요 장면을 모아 보여주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며, 창극에 대해 생소한 장교 관객들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춘향가〉의 '사랑가', 〈심청가〉의 '뽕파전', 〈홍보가〉의 '놀부 박 타는 대목' 무대를 비롯해 국립창극단 기악부의 '시나위 합주' 연주를 80분간 선사했다. 특히, 국립창극단의 대표 콤비인 서정금과 남상일이 사회를 맡아 객석에 웃음을 전달했다.